

기고

겨울철 안전, 지금의 작은 실천에서 시작된다

겨울철은 난방기기 사용이 크게 증가하면서 전기화재 위험이 급격히 높아지는 시기다. 실내 활동이 늘고 난방장치, 열선, 전기장판 등 전열기기 사용량이 급증함에 따라 주택과 상가, 축사 등 생활공간 곳곳에서 부주의로 인한 화재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겨울철 특성상 전기화재는 초기 연소속도가 빠르고 연기량이 많아 대피가 어려워지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겨울철 전기화재의 대부분은 과부하, 과열, 접촉불량이라는 공통된 원인에서 비롯된다.

전열기구를 한 멀티탭에 여러 개 동시에 사용하는 '문어발식 사용', 접히거나 눌린 전선·전기장판으로 인한 과열, 오래된 전선 피복 손상, 차단기·배전반 내부 먼지로 인한 누전 등은 대표적인 위험요소다. 특히 열선의 겹침, 목은 먼지, 느슨해진 전선 접촉처럼 눈에 잘 띄지 않는 위험은 더욱 치명적이다.

전기화재는 전문 장비나 복잡한 점검 없이도 일상 속 작은 확인만으로 충분히 예방 가능하다.

전기화재는 반드시 전용 콘센트에 단독으로 사용하고, 장시간 작동 시 간헐적으로 켜켜 주어 과열을 방지해야 한다. 전기장판 위에는 이불이나 방석 등을 겹쳐 덮지 말고, 장판 위에 무거운 물건을 올려둘 경우 내부 열이 갇혀 발화 위험이 높아진다. 또 열선은 겹침·눌림 없는 '직선형 설치'가 원칙이며, 오래된 멀티탭이나 콘센트는 3~5년 주기 교체가 안전하다.

전기안전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위험을 줄이는 생활습관을 꾸준히 실천하는 것이다.

▲사용하지 않는 전기제품은 플러그를 뽑기▲멀티탭에 전열기구 2대 이상 연결 금지▲피복 손상 전선은 즉시 교체▲타는 냄비·스파크 등 이상징후 발견 시 즉시 전원 차단▲취침 전 난방기기 전원 OFF 확인

▲누전차단기는 월 1회 시험 버튼으로 점검 이 작은 습관 하나하나가 화재를 미연에 차단하는 가장 강력한 안전 장치이다.

전기화재는 화염 확산과 연기 발생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초기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전기화재에는 물을 절대 사용해서는 안 되며, 분말소화기나 이산화탄소 소화기가 적합하다. 가정이나 업소에서는 소화기 1대, 감지기 1개 이상 설치가 필수이며, 실제 소화기의 위치와 사용법은 가족·직원이 모두 숙지해야 한다. 또한 "경보음 울림 → 전원 차단 → 119 신고" 기본 행동요령을 반복적으로 연습해 두면 만일의 상황에서 침착한 대처가 가능하다.

전기화재는 예고 없이 찾아오지만, 대부분은 작은 부주의 하나로 시작되는 예방 가능한 사고다. 따뜻하고 안전한 겨울을 위해 오늘 하루, 콘센트 하나, 스위치 하나부터 점검해 보자. 우리의 작은 실천이 가족과 이웃의 생명을 지키는 가장 든든한 방패가 될 것이다.

강진소방서 예방안전과 소방교 이승빈

인간은 모두 행복하기 위해 창조되지 않았을까. 그러려면 타인과의 관계 형성이 긍정적이어야 할 것이다. 부정적인 관계 속에서는 결코 진정한 행복을 구할 수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남을 포함하면 되돌려 받아야 하고, 미워하고 시기하면 미움과 시기를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오늘날의 현상은 어떤가. 자신들의 행복만을 위해 질주하고 있는 듯하다. 타인들의 행복 따위에는 아예 관심도 없는 듯이. 심지어 인생에 있어서 가장 아름답고 청순해야 할 일부 청소년들까지도 그렇다. 그 수법이 능숙하고 기교적이다. 조폭이 무색할 정도다.

칼럼

임성욱

시인/사회복지학박사



가장 해로운 병원체에서라도 벗어나 보자

복해될 수 있을까. 자라서 무엇이 될까. 우리 사회에 어떤 영향을 주게 될까. 가슴이 답답해짐을 금할 길이 없다. 어쩌다가 우리 사회가 이 지경까지 이르렀을까. 교육의 문제가 아닐까.

특히 일등주의를 지향하는 입시 위주의 교육이 한몫을 단단히 했다고 본다. 최소한 초·중학교 시절만이라도 문학과 도덕교육을 강하게 시켜야 하지 않을까. 그런데 이런 교육이 학교 현장에서 사라진 지 이미 오래다. 그 대신 삭막한 경쟁만이 있을 뿐이다. 그러니 언제 인격도야를 할 수 있겠는가. 요즘은 경쟁교육이 태동에서부터 시작된다고 한다. 물론 태교는 옛날부터 있었다. 하지만 그 질이

다르다. 옛날 교육이 주로 인격도야에 치중했다면 오늘날은 학습 위주라는 것이다. 태중 영아교육이 단적인 예다. 그러니 태어나자마자 학원에 다니는 것 아닌가. 언어의 표현과 수용 능력이 매우 부족한 영아들까지도 학원으로 보내지고 있다는 말이다. 그런 삭막한 환경에서 자라나는 아이들에게서 도덕과 감성을 감히 바랄 수 있겠는가. 그래서 요즘에는 자녀들이 너무 착하면 오히려 걱정스럽다고 한다. 장차 험한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를 우려하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악하게 살라고 할 수도 없잖은가. 이게 오늘날 우리 사회의 현실이다. 그래서 자살하

는 학생들도 발생한다. 하지만 효율적이고도 효과적인 해결책은 보이지 않는다. 극단적 이기주의가 이런 현상을 불러오기 때문에 그에 대한 대책도 각자의 이기주의적인 입장에서 마련하려 하니 그럴 것이다. 그러니 제대로 된 대책이 나오겠는가. 오죽했으면 신은 죽었다고 선포한 독일의 철학자 니체가 지구상에서 가장 해로운 병원체는 인간이라 했을까. 인간이란 바이러스는 자신이 저지른 잘못된 행위가 파멸을 불러올 거라는 것을 알면서도 눈앞에 놓인 아주 작은 이익 때문에 멈추지를 못하는 것이다. 죽음을 눈앞에 두고서야 깨달을 수 있을까. 하지만 그때는 이미 늦은 것 아닌가. 온갖 악행을 저지르며 남을 괴롭힌 사람들이 임종에 이르러서야 회개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이런 사람들을 증오한다. 수많은 세월 동안 우리 사회에 커다란 피해를 주었기 때문이다. 물론 그마저도 하지 않고 가버리는 사람보다는 낫겠지만. 서두에서 얘기한 바와 같이 우리는 모두 행복하기 위해서 태어났잖은가.

*본란의 내용은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독자투고

생활 속 전기 사용, 화재 위험은 가까이에 있다

겨울철에는 난방기와 전열기기 사용이 늘어나면서 전기화재 발생 위험도 함께 높아진다. 전기화재는 눈에 잘 드러나지 않는 전선 손상이나 전기 과부하 등 사소한 원인에서 시작되는 경우가 많아 평소 세심한 점검이 필요하다.

편리함에 익숙해진 일상 속에서 하나의 콘센트에 여러 전기기기를 연결하거나, 노후된 전선과 멀티탭을 그대로 사용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그러나 이러한 작은 습관이 예기치 못한 화재로 이어질 수 있다. 특히 사용하지 않는 전기기기의 전원을 켜둔 채 방치하거나

외출 시 플러그를 분리하지 않는 행동은 전기화재 위험을 높이는 주요 원인이 된다. 전기화재 예방은 거창한 준비에서 시작되지 않는다. 가정 내 전기설비 상태를 한 번 더 확인하고, 전열기기 사용 후 전원을 차단하는 작은 실천만으로도 위험을 충분히 줄일 수

있다. 일상 속 전기 사용 습관을 점검하는 것이 곧 가족과 이웃의 안전을 지키는 출발점이 된다. 보성소방서는 시민들이 전기 안전에 대한 관심을 생활 속에서 실천해 주길 바란다. 전기화재는 미리 살피고 조심하면 예방할 수 있는 사고다. 오늘 하루, 집 안의 전기 사용 상태를 다시 한 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 보성소방서 예방안전과 송창훈

오늘의 운세 2026년 1월 23일 금요일 (음력 12월 5일)

Grid of 12 zodiac signs with their respective horoscopes for the day. Includes signs like Rat, Ox, Tiger, Rabbit, Dragon, Snake, Horse, Goat, Monkey, Rooster, Dog, Pig.

광전매일신문 TEL. (062) 525-9775 FAX. (062) 528-4566

Table with subscription information for Kwangjeon Maeil Shinmun, including contact details and rates.

Large advertisement for Kwangjeon Maeil Shinmun celebrating 50 years of the Gyeongju Expressway. Features a hand holding a map of Korea and logos for EX Korea Expressway and 50th Anniversary.